수행자의 이상적 인격, 사군자에 담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⑦ 창녕 관룡사 약사전 화조도 벽화

법당장엄에 성리학적 문인화 등장

조선 후기 전통사찰 법당장엄에서 수묵화도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로 수용됐다. 조선시대 법당장엄 벽화의 흐름을 큰 시선으로 살펴보면 불보살의 불교장엄 중심→수묵산수화와 조사 및 고사인물도→민화풍의 화조도로 이행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순천 선암사의 불전들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고흥 금탑사 극락전, 김천 청암사 보광전, 순천 송광사 관음전 등에선 수묵화나 사군자, 화조도 등을 법당장엄의 중심 소재로 활용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의 경우 한 칸 규모의 작은 법당 안팎에 사군자, 화조도, 묵매도, 소나무 그림 등 법당장엄에 유가적 경향의 소재 일색이라 눈길을 끈다. 법당장엄에 왜 선비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성리학적 문인화, 곧 사군자나 수묵화가 등장하는 것일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찰벽화 장엄에 사군자나 수묵산수화 등 유가의 성리학적 화풍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매난국죽 사군자나 수묵산수화는 은일과 절의, 지조, 청정, 고결의 이미지로서 죽림에 묻힌 은일 군자의 상징으로 해석됐다.

동양철학에선 자연 형상을 통해 사람의 내면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이형사신(以形寫神)'의 태도를 견지했다. 예컨대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한 그루나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 고매한 그루는 선비의 고아한 절의의 상징으로 감정 이입됐다. 그런 자연 이미지는 불교 선 수행자가 견지해야 할 계율과 청정의 덕목과도 겹쳤다. 선과 문인화의 결합은 서로 내면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다. 소박하고 간결하며 직관적이고 내면의 고요한 마음과 정신성을 강조하는 측면 등에서 상통한다.

진리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미학적 추구 방향도 다르지 않다. 법당을 사군자 벽화로 장엄함으로써 내면의 청정함을 닦는 수행정진 공간의 의미도 살려냈다. 사군자 중심의 수묵화나 화조도는 수행자의 이상적 인격을 시각화한 문인화풍 상징 벽화로 적극 수용된 산물로 해석 가능하다.

상층엔 53불벽화, 하층엔 수묵화풍

관룡사 약사전 내부의 벽화장엄은 뚜렷한 두 개의 층위를 보여준다. 벽면의 상인방 위는 부처의 세계로, 상인방 아래는 문인화풍 사군자와 민화풍 화조도로 장엄했다. 상인방 위에 조성한 벽화는 놀랍게도 대단히 희귀한 53불 벽화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 내부 동측 면 벽화(사군자).


창녕 관룡사 약사전 내부 서측 면 벽화(화조도).


창녕 관룡사 약사전 내부 53불벽화 중 북측 면 부분.

북측 면	4개 화면			
	매화도			
동측 면	매화도	난초도	국화도	대나무도
	백매+새1	난초+백로2	국화+나비2	대나무+새1
서측 면	국화도	연화도	포도도	국화도
	국화+나비2	연화+새1+갈대	포도+새1+토끼1	국화+나비4

53불 벽화는 두 곳에만 현존한다. 안동 봉황사 대웅전과 관룡사 약사전 두 곳뿐이다. 53불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불모다. 과거·현재·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53불을 지극히 예경한 인연 공덕으로 부처가 되셨다고 〈관약왕약상이보살경〉은 밝히고 있다.

동서남북 사방 상벽에 그린 53불 벽화는 종이에 그린 후 벽면에 붙인 독특한 첩부벽화다. 53불의 본질은 청정이다. 모든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에서 나투셨다. 하층의 벽화도 청정한 무위의 자연 세계다. 상층의 53불 벽화와 하층의 수묵화풍 화조도가 중층적 평행우주를 이룬다. 두 층위의 장엄세계는 이질적이지만 청정의 본질에선 둘이 아니다. 상인방 아래 벽화의 중심 소재는 사군자와 화조도, 그리고 묵매도다. 북측면과 동서 측면에 걸쳐 동북서 삼면에 그려 뒀다. 삼면의 각 면은 활짝 펼친 4폭 병풍 형상이다. 동측 면 4폭 벽화 크기는 세로 172㎝×가로 240㎝에 이르고, 서측 면의 4폭 벽화는 171×230㎝, 북측 면의 4폭 벽화는 161×280㎝ 크기다. 세 화면은 동측 면에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서측 면에 민화풍의 화조도와 포도도를, 북측 면에 단순 간결한 묵매도를 중심 소재로 삼았다. 동서 양 측면의 수묵화풍 사군자와 화조도가 단연 탁월하다. 두 화면을 연결하면 하나의 8폭 화조도 병풍을 이룬다. 한국 산사에 장엄한 수묵화풍의 벽화 중에 구성이나 크기, 채색, 표현력, 예술성취도 등에서 비교 불가로 단연 뛰어난 수작이다.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소비적 벽화가 아니라 대단히 목적의식적으로 조성한 진채수목화 사찰벽화로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다.

채색 원리에서는 묵의 농담으로 자연 대상을 표현한 수묵화풍에 드문드문 진채를 베풀었다. 수묵화의 담묵은 대상이 지닌 특성을 깊이 내면화시키는 미묘한 힘이 있다. 진채는 감정이 보다 직관적이다. 벽화에선 감정을 들뜨게 하지 않기 위해 색채 사용을 대단히 절제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약사전의 수묵화풍 벽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찰벽화에서 선비 문인화의 대표격인 사군자의 목적의식적 조성은 희귀하다. 울산 백양사 칠성각에서처럼 포벽 등에 분산해서 그려 둔 사례는 간혹 있지만 관룡사 약사전처럼 바탕 마감에서부터 대칭적 구성까지 대형 화면을 기획하여 조성한 사례는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형상에 정신 담은 '이형사신'의 태도
동벽엔 사군자, 서벽엔 민화풍 화조도
동서벽면 화조도는 하나의 8폭 병풍
목적의식적 최대 규모의 대형 화조도

성리학적 선비들의 그림인 사군자 문인화도 민화풍의 화조도적 성격으로 재해석하여 그려서 더욱 인상적이다. 모든 꽃과 나무에 새나 학, 나비를 그려 넣었다. 사군자와 연꽃, 포도 등의 중심 소재는 모두 수묵화풍으로 그렸다. 붓질이 대단히 능숙하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로 내면의 깊은 감성을 표현하는 담담한 수묵화의 골기가 살아 있다. 잎에 올린 먹의 농담 처리도 능수능란하고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응물상형의 묘사력도 탁월하다. 전문 화원의 능숙한 붓놀림이 눈에 선하다. 간간이 새나 나비, 꽃봉오리에 진채를 가볍게 툭 풀었는데 그것이 불상의 점안처럼 화면에 미묘한 생동감과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 옅은 담묵과 짙은 농묵의 조화로운 농담으로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잠길 것은 잠기게 했다. 예사로운 붓질이 아니다.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이토록 부드럽고 생명력 있으며 정감 있게 표현한 벽화는 또 없을 것이다.

사군자, 수행자의 이상적 인격화

서쪽 벽면에 그린 민화풍의 화조도(화접도) 중에선 연꽃 표현과 포도도 벽화에 눈길이 간다. 연꽃은 불교의 꽃으로 연화화생이 작동하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북송의 성리학자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 이후 사군자와 더불어 도덕적 군자의 상징적 자연물로 감정 이입됐다. 주돈이는 〈애련설〉에서 모란, 국화, 연꽃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꽃 중의 군자인 연꽃을 사랑한다고 적었다. "진나라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했고, 당대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모란을 매우 좋아했다. 그런데 나는 진흙 속에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을 유독 사랑한다. 향기는 멀리 있을수록 더욱 맑고 우뚝한 자태로 청정히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생각하건대 국화는 꽃 가운데 은자이고 모란은 꽃 가운데 부귀한 자이지만 연꽃은 꽃 중의 군자[花中君子]이리라." 관룡사 약사전의 연꽃은 불교적 성격보다는 성리학적 군자상의 상징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사찰의 법당장엄에서 간간이 포도 벽화를 볼 수 있다. 영광 불갑사 대웅전, 문경 김용사 응진전, 안동 봉정사 응진전, 남원 선원사 칠성각 등 예닐곱 곳에 현존한다.

포도 그림은 석류 그림과 함께 민간에서 다산과 자손 번창의 대표적인 상징 이미지다. 한 줄기에 숱한 씨앗,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포도 그림의 핵심 구성은 덩굴과 풍성한 열매다. 덩굴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담겼고, 풍성한 열매는 씨앗, 곧 자손 번창의 염원이 담겨 있다. 약사전의 포도 그림에는 약사여래의 가피를 빌려 생명 잉태와 집안의 대를 영겁으로 이어나가려는 민간의 바람이 서렸다.

유심히 살펴보면 포도 그림 속에 흰색 토끼 한 마리가 보인다. 포도와 토끼는 다산의 은유로서 동의 반복과 다름없다. 자연의 형상에 담긴 형이상학적 상징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간직한 염원과 고귀한 정신세계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선 수행과 예술에서의 사군자 수묵화는 서로 통하는 바다. 농묵으로 힘 있게 뻗쳐나간 일필휘지의 필선은 화두 참선을 통한 단박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 수행의 기질과도 미학적 친연성을 가진다. 수묵 기법의 거침없는 필치의 사군자나 단순 간결한 묵매도 등은 순간적인 내면의 깨달음과 직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선 수행과도 잘 부합한다. 사군자의 불교장엄 세계에의 수용은 고요한 관조와 사유를 통한 내면의 직관적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 수행승의 지향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관룡사 약사전의 사군자 벽화 속에 선 수행자의 이상적 인격이 투영돼 있다. 약사전 벽화 속에 봄이 찾아와 꽃은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새가 지저귄다. 부처님 자비 속에 처처소소에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니 곧 세상이 태평할 것이다.



노재학 작가

